

음식점 동의도 없이... 배민 멋대로 가격 할인

입점 가게 부담 '주문 금액 할인' 자동 설정 말썬 100~9000원까지 임의로 가게 정산금에서 차감 업주들 "일방통행식 사전 공자... 문제없다며 갑질"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배달 주문시 입점 음식점이 부담하는 '가게 주문금액 할인'을 두고 명확한 음식점 동의 없이 '자동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배민 측의 사전 고지에도 가게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중요한 할인 항목인 만큼 음식점 사장의 동의를 받고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배민 앱에서 음식점 메뉴 요금 결제창의 '가게 주문금액 할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장이 제공하는 할인으로 모든 배달팁 할인 후에도 가능한 경우 주문금액을 할인해 드립니다'고 써 있다.

그러나 배민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들은 해당 할인 항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게시글을 통해 "할

인해 준다'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생긴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같은 취지의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들이 이어졌는데 대부분 주문서를 통해 뒤늦게 이를 알아챈 경우였다. 이들이 밝힌 '가게 주문금액 할인'으로 설정된 금액은 100원부터 9000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해당 금액만큼 가게 정산금에서 차감된 것이다.

배민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할인 항목은 기존에 개별 가게에서 설정한 '고객 배달팁 할인'이 통합 할인으로 바뀌면서 배달팁에 한정된 할인이 주문금액 할인으로 확장·전환된 것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객 배달팁 할인 기능으로 설정해둔 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을 경우 이를 주문금액(메뉴 금액)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민 측은 앞서 6월 관련 사항에 대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배달 주문시 음식점이 부담하는 '가게 주문금액 할인'을 음식점 동의 없이 자동 설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동 전환 설정이 아닌 수동 설정으로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아한형제들

'자동 전환 설정'에 대해 공지하며 원치 않을 경우 별도 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에서 배민 측은 "7월30일 이후에는 (고객 배달팁 할인에) 설정하신 금액이 '통합 할인'으로 배달팁 가게 할인부터 '가게 주문금액 할인'으로 순차 적용된다"

며 "기존에 '고객 배달팁 할인'을 설정해두신 사장님들께서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이전에 할인 금액 수정을 하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배민 측의 사전 공지에도 음식점 사장들은 '가게 주문금액 할인'이 음식점이 가져가는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중요한 할인 항목인 만큼 자동 전환 설정이 아닌 수동 설정으로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배민을 향해 "지난번 배민플러스 변경할 때는 최소한 동의 버튼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동의도 아니고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배달팁과 전체 금액할인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자영업자만 피해보는 정책을 자영업자 동의 없이 진행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기능 적용 이전에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한 공지 뿐만 아니라 대상 업주분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축 100만 마리... 역대급 폭염에 폐사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닭과 돼지 등 가축이 100만 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6월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폭염으로 누적 99만7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구체적으로 돼지 6만 마리와 가금류 93만7000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양식 폐해는 567만2000마리로 269개 어가에서 조피불락 336만6000마리 등이 폐사했다.

5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누적 28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환자 2501명 대비 389명 늘었다. 19일 하루에만 7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해 총 26명이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명이 적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6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폭염으로 99만 7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연합뉴스

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에 대출 등 1.6조 펀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상품권 등 359억 환불... 집단 분쟁조정 추진 방침

정부가 최근 티몬·위메프의 잇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의 구제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돕기 위한 1조60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누계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피해 업체 대상 대출 진행을 위해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총 3000억 원 투입으로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했다. 이는 7일 대책 발표 대비 3600억 원 정도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기존 대출 연장 등 지원도 1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 외에도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 및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국제청은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국제청은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이나 세무조사·압류 및 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사태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는 상황반을 마련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 발생 시대 지급금과 생계비 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을 완료했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 남은 피해자 구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정산 주기 법제화 및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업 체감경기 두 달째 악화 제조업·비제조업 나란히 ↓

한은, 기업경기조사결과 8월 기업심리지수 2.6p↓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p 하락한 92.5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산업 CBSI는 6월 95.7에서 7월 95.1로 다섯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뒤 이달

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8월 첫째 주로 글로벌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지수에 반영됐다"며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2.8로 전월 대비 2.9p 하락했다. 업황(-0.4p)·생산(-0.2p)·신규 수주(-0.8p)·제품 재고(-0.6p)·자금 사정(-0.8p) 등 구성 5대 지수 모두 부진했다.

비제조업 CBSI도 마찬가지로 업황(-0.4p)·매출(-0.6p)·채산성(-1.0p)·자금 사정(-0.5p) 등이 나란히 하락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자동차도 업황 지수가 17p, 자금 사정 지수도 12p 내렸다.

김기찬 기자 gskim@skyedaily.com

굿네이버스

THE NEIGHBORS HONORS CLUB

The life

Honors Club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당신의 선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세요.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나눔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문의 02·6424·1782 / 1826

홈페이지 goodneighbors.kr / 이메일 gnm@gni.kr

등재식 진행

예우 공간 등재

정부 포상 추천

국내/외사업 현장방문

맞춤형 후원사업 운영

사업 결과 보고